

SKT, 11번가·현대카드·우리은행과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

온라인 영세상인들, 非금융데이터로 신용도 ↑ 대출문턱 ↓

협력사들 저금리 신용대출 개발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 혜택
SKT “ICT 기술로 사회적 가치창출”

SK텔레콤은 11번가,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우리은행과 손잡고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협력사들은 오프라인 소상공인 대비 금융이력이 부족한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동통신과 이커머스에서 발생한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이커머스 소상공인 대상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가능해졌다. SK텔레콤은 비금융정보전문 신용조회



4일 SK텔레콤을 지도 본사에서 열린 ‘혁신 금융·ICT 융합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업무 협약식’에 SK텔레콤과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박진호 SK텔레콤 ICT기술센터장, 이상호 11번가 대표, 김병희 현대캐피탈 부문대표, 김덕환 현대카드 부문대표.

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협력사들은 11번가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및 저금리 신용대출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이커머스 비금융데이터를 분석, 신용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해 기존 낮은 매출과 담보 부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이 자신의 신용을 새롭게 인정받아 대출한도 상향, 이자 절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SK텔레콤은 각종 데이터를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게 활용하는 한편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도 지속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이커머스 소상공인들은 낮은 매출과 1인 단독 운영 등의 영세한 형

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담보 부족과 낮은 신용도로 인해 1~2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ICT 기술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절감이라는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SK텔레콤은 협약기업들과 이커머스를 시작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금융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SK텔레콤 박진호 ICT기술센터장은 “ICT 기술을 활용해 SK텔레콤이 추구하는 한편 비금융정보 활용 신용평가체계의 타당성 및 적정성도 지속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등기이사 연장 안한다

그룹 총수 역할은 지속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사내 등기 이사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번 달 임시 주주총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 부회장 사내 등기이사 임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 부회장은 2016년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폭발 등 경영 위기에 몰리면서 직접 사내 이사에 임명돼 책임 경영을 시작한 바 있다. 사내이사 임기는 3년, 오는 26일이 마지막 날이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 공백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는 25일 국정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삼성전자

농단 관련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다.

단, 이 부회장은 사내 이사에서 물려난 후에도 그룹 총수 역할을 지속하며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웅 기자 juk@

건조기 시장 1위 ‘삼성전자’… 점유율 50% ↑

위생적관리·대용량, 소비자에 인정

삼성전자가 국내 건조기 시장 1위를 확고히 했다.

삼성전자는 올 7월부터 국내 건조기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이어가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연 건조방식과 위생적 열교환기 관리, 대용량 설계 등으로 소비자에 인정받았다고 요인을 분석했다.

삼성 건조기 그랑데 ‘안심건조’ 캐민 영상도 누적 조회수가 6000만건을 돌파했다.

/김재웅 기자

美 NBA에 등장한 초대형 LED 스크린

삼성전자

총 면적 1848㎡ 달하는 스크린 설치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농구팀 ‘골든 스테이트 워리ور스’ 홈 경기장 체이스센터에 스크린을 대거 설치했다고 6일 밝혔다.

체이스센터는 NBA 2019~2020시즌부터 처음으로 사용되는 경기장으로, 1만8000명 이상 수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초대형 LED 스크린 64개와 일반 스마트 사이니지 1100개 이상을 사용했다.

초대형 LED 스크린은 설치 면적을 합치면 1848㎡에 달한다. 농구 코트와 비교해 4배나 큰 크기다.

특히 경기장 중앙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코어보드용 스크린은 360도 형태로 크기만 901㎡나 된다. 어느 위치에서 도 잘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재웅 기자

국내 카셰어링업계, 친환경차 도입 앞장

**그린카 친환경차 풀 라인업 구축
쏘카 연말까지 300대 친환경차 보유**

국내 카셰어링 업계의 양대산맥인 그린카와 쏘카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맞춰 친환경차 도입에 속도를 높인다.

환경 규제 강화와 미세먼지 절감 등으로 친환경차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카셰어링 업계도 전기(EV)-하이브리드(PHEV) 모델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6일 카셰어링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유차 서비스를 시작한 ‘그린카’는 9월 말 기준 1407대(EV 238대·HEV 816대·PHEV 5대·신차350대)의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다. 그린카는 카셰어링 업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차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으며 최대 규모다.

그린카가 보유한 친환경 차는 ▲현대차 아이오닉 ▲쉐보레 볼트 EV ▲기아차 쏘울 ▲기아차 쏘울 부스터 등 4종의 전기차와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니로 ▲쉐보레 볼트 등 3종의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그린카는 2017년 친환경차 420대에서 발빠르게 추가로 차량을 도입하며 2018년 670대까지 차량을 확대했다.

그린카 관계자는 “올해 디젤 차량을 증차할 계획이 없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디젤 차량 비중을 줄여 나갈 것”이라며 “카셰어링 업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차 풀 라인업을 구축한 만큼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객 경험 확대 및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차량공유업체인 쏘카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에 나선다. 쏘카는 전기차 보유 대수를 2017년 109대에서 2018년 220대로 늘리며 빠르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300여대의 친환경차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쏘카는 지난해부터 친환경기반 공유 차량을 비전으로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디젤 프리 ▲LPG 프리 ▲전기 혹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앞으로

도 친환경 차량 운영에 집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쏘카의 자회사 VCNC가 운영하는 ‘타다’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NO)디젤’ 정책을 선언하고 3년 내로 디젤 차량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다.

타다는 노디젤 정책에 따라 신차 구매 시 디젤 차량은 제외한다. 최근까지 기아차의 11인승 카니발은 디젤 모델 뿐이었지만 지난달 초 가솔린 모델이 추가 출시되면서 카니발 전 차종의 노디젤화가 가능해졌다. 타다는 차량을 구매하고 3년 후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늦어도 2022년까지는 ‘디젤 프리’를 실현하게 된다.

이재용 쏘카 대표는 “친환경 승용차 기반 차량공유와 모빌리티 플랫폼은 쏘카와 타다의 궁극적인 목표”라며 “쏘카와 타다는 노디젤은 물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국내 수입차 시장, 빈부격차 ‘확연’

벤츠·BMW·아우디 판매 증가
그외 대부분 판매량 감소세

지난달 국내 수입차 시장이 메르세데스-벤츠의 선전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월간 판매량 2만대를 넘어섰다. 수입차 판매량 감소세가 9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빈익빈 부익부’가 확연했다.

수입차 판매량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아우디 등은 제외하면 대부분 판매량은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00대를 넘어선 브랜드도 이들 뿐이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에 따르면 지난 9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1만7222대) 대비 17.3% 증가한 2만204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과 비교해도 판매가 11.5% 늘었다.

이에 따라 올 9월까지 누적대수는 16만709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인기가 눈에 띈다. 지난달 벤츠는 7707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어 BMW 4249대, 아우디 1996대, MINI 1031대, 볼보 996대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운 기자

»3면 ‘정부 AI윤리…’서 계속

과기부, AI윤리지침 검토

“제정할지 여부 결정할 것”

과기정통부는 방통위와 별개로 AI 윤리지침을 마련할지를 놓고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AI 윤리가 중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는 AI 윤리 관련 정책 연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전 작업을 통해 AI 윤리지침을 제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OEC D AI 윤리원칙을 만들기 위해 작업반을 만들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관련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채운정 기자 echo@